철도파업 장기화 … 화순광업소는 기적소리 끊기고

연탄공장엔 '시커먼 한숨'

저탄장 시설 없어 공장 가동 멈출 위기

철도노조 파업으로 광주·전남의 화물열차 운행이 사실상 중단돼 철도 물류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물 적체량이 늘어나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여객열차 인력을 빼서 화물열차에 투입하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물류 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여객 열차 운행도 평소보다 20% 가까이 줄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나흘째인 29일 오후 2시 화순군 동면 복암리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열차가 다녀야 할 철로에는 검은색 탄(炭)가루가 끼어 있었다. 기적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광업소 내 저탄장(貯炭場)에는 하루 평균 1천t의 무연탄이 쌓이고 있다.

최대 저장량이 160만t인 이곳에는 현재 정부 비축탄 60만t을 포함, 총 65만t의 탄이 저장돼 있다. 95만t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

문제는 영세한 연탄공장이다. 광업소에서 하루 평균 2천t의 무연탄을 공급받는 연탄공장은 광주와 전남·북지역 3곳을 포함한 전국 35곳이다.

그러나 일부 공장을 제외한 상당수 연탄공장의 경우 규모가 적은 영세업체로 저탄장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5일 이상 탄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형편이다. 화순광업소 관계자는 "겨울철 성수기인데, 철도 파업으로 영세규모의 연탄공장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화물열차 운송이 하루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열차 운송에 의지하는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수산업단지에서 매일 1회 주원료인 프로필렌 520t을 열차로 들여오는 LG화학 나주공장에서는 공장의 특성상, 비록 양은 줄어들었지만 열차운송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양이 460t으로 감소하면서 줄어든 60t은 비축한 분량에서 끌어다 쓰는 형편이다. 열흘 정도 지나면 재고가 바닥날 것이라는 게 업체 측의 전망이다.

철도 파업이 계속되면서 코레일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코레일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 여객 열차 운행 횟수는 광주의 경우 평상시 87회에서 75회로, 전남은 52회에서 40회로 줄었다.

화물의 경우 광주본부는 평소 16회에서 4회만 운행 중이며, 전남본부는 주말 24회 운행하던 것을 13회로 줄여 운행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민 자전거 타기 한마당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광주본부는 28일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시민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시민 자전거 타기 한마당'행사를 열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지리산 둘레 길 걸으며 케이블카·댐 반대운동

지리산만인보준비위

지리산 일대 시민·사회단체들이 1년간 지리산 둘레 길을 걸으며 정부의 케이블카 설치, 지리산 댐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인다.

29일 '(가칭)지리산만인보(萬人步)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내년 2월 28일부터 2011년 3월 12일까지 지리산 둘레 길 850리를 걸으며 지역 주민과 만나 지리산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기준 완화 움직임에 따라 지리산과 인접한 구례·남원 등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가 이뤄지면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자연생태가 훼손되고 이는 곧 지리산의 아픔이라는 것이 준비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준비위는 지리산권 5개 시·군에 각각 독자적 사무실과 실무능력을 갖춘 단체를 선정해 지역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지리산 둘레 길을 함께 걷는 인원은 이들 단체와 주민 등 모두 1만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인당 1만원씩 모금한 1억원을 행사비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행사기간 격주 토요일에 지리산 인근 시·군의 읍·면 소재지를 잇는 길을 걷기로 했다.

준비위에는 공이송(전 언론인)·박화강(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성염(전 로마교황청 대사)·엄용식(지리산기독교환경연대 공동대표)·연관(실상사 수월암 주지)·윤장현(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함태식씨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지리산만인보는 지리산의 가치와 우리 시대 지리산의 의미를 되살려보기 위한 발걸음"이라며 "지리산에 댐이 만들어지고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우리 세대는 민족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어서 이를 막고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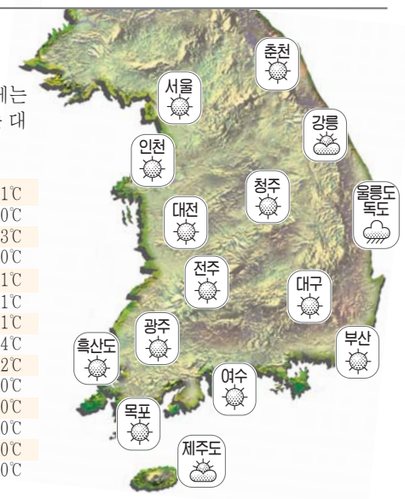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21분 / 해짐 17시 21분 — 달뜸 15시 26분 / 달짐 04시 54분

맑은 날씨 회복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구름이 많겠으나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맑 음	4/11℃
목 포	구름 조금	4/10℃
여 수	구름 조금	5/13℃
완 도	구름 조금	4/10℃
구 례	구름 조금	1/11℃
해 남	구름 조금	2/11℃
장 흥	구름 조금	2/11℃
고 흥	구름 조금	2/14℃
순 천	구름 조금	4/12℃
영 광	구름 조금	2/10℃
진 도	구름 조금	3/10℃
전 주	구름 조금	2/10℃
남 원	구름 조금	1/10℃
흑산도	구름 조금	7/10℃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낮음	주의	낮음

	밀물	썰물
목포	12:38	05:21
	--:--	18:06
여수	07:33	01:01
	19:36	13:3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화)	2(수)	3(목)	4(금)	5(토)	6(일)
날 씨						
최저/최고	2/13	3/14	5/12	2/13	4/11	2/13

조선대 디자인육성대학 선정

국비 15억 받아 광산업 선도 디자인전문인력양성

조선대학교가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이 주관하는 '융합형디자인대학육성사업'에 선정, 2010년부터 5년간 15억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아 광주의 주력사업인 광산업 선도 디자인전문인력양성에 나선다.

'융합형디자인대학육성사업'은 디자인에 광기술학·전자공학·경영학 등을 접목한 다학제적 융합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디자인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국가성장동력의 핵심역량으로서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최종 평가에서 조선대를 비롯해 서울대, 홍익대 등 8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호남권에서는 조선대가 유일하게 뽑혀 국내 디자인교육을 이끌어 갈 거점대학으로서의 역량을 검증받았다.

이에 따라 조선대 융합형 디자인대학육성사업단은 디자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광기술학, 전자공학, 경영학이 융합된 학·석사 연계 5년제 디자인공학과를 신설하고, 산학연 협력교육을 통해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고법 '북 세미나'

김용찬 순천대 교수 초청 … 직원들 자기계발

광주고법(법원장 김관재)은 30일 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법관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詩)로 읽는 세상'의 작가 김용찬 순천대 교수를 초청해 '북 세미나(book seminar)'를 연다.

이날 '북 세미나'의 주제는 '조선의 영혼을 훔친 노래들'로,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시조들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도할 계획이다.

'북 세미나'는 독서 문화와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그동안 서울고법에서 추진돼 왔으며, 광주·전남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